

- 주요 뉴스: 영국 중앙은행 경기침체 예상에도 정책금리 빅스텝(0.5%p) 인상
 - 클라블랜드 연은 총재, '23년 상반기 정책금리가 4%를 넘어설 필요
 - 뉴욕 연은 7월 글로벌공급망압력 지수, 18개월래 최저. 공급 병목 완화 지속
 - 일본 재무성 관계자, 일본은행의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폐지에 대비할 필요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월간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혼조

주가 하락[-0.1%], 달러화 약세[-0.7%], 금리 하락[-2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낮은 거래량 속에서 고용지표 경계감으로 보합
유로 Stoxx600지수는 여행 및 레저관련주 강세 등으로 0.2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가 반영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8%, 0.7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둔화 우려 등이 영향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7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02.5원, -7.6원) 0.5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8/4일	8/3일	전일대비			8/4일	8/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51.9	4,155.2	-0.08%	국채 금리 10y	미국	2.69%	2.70%	-2bp
	유럽	439.06	438.29	0.18%		독일	0.80%	0.87%	-7bp
	중국	3,189.0	3,163.7	0.80%	CDS 5y	한국	41bp	41bp	0bp
	일본	27,932	27,742	0.69%		중국	79bp	82bp	-3bp
	한국	2,473.1	2,461.5	0.47%	위험 지표	EMBI+	-	443	-
환율	달러지수	105.76	106.51	-0.70%		VIX	21.44	21.95	-2.32%
	유로화	1.0246	1.0166	0.79%		WTI유	88.54	90.66	-2.34%
	엔화	132.89	133.86	0.73%	원자재	구리	348.2	346.7	0.42%
	위안화	6.7493	6.7580	0.13%		금	1,791.3	1,765.3	1.47%
	원화	1,310.1	1,310.3	0.0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영국 중앙은행(BOE), 경기침체 예상에도 정책금리 빅스텝(0.5%p) 인상

- BOE는 1995년 이후 처음으로 50bp 금리인상을 단행. 2023년 GDP성장을 전망치는 기존 -0.25%에서 -1.50%로, 2024년 전망치는 0.25%에서 -0.25%로 하향 조정. 금년 말부터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 경고
- 6월 현재 9.4%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13.3%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, 이는 기존 전망치에서 3%p 상향된 수치. 물가상승률은 내년 3분기까지 9%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
- 양적긴축(QT)은 분기당 자산매각 100억파운드를 계획하고 있으며 만기 상환분까지 포함하면 처음 1년 동안 총 800억파운드의 자산감소가 예정
- 이번 통화정책회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. 회의 후 금리선물시장에 반영된 향후 추가 금리인상폭은 약 1%p 정도이며,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수록 추가 인상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, '23년 상반기 정책금리가 4%를 넘어설 필요

- 메스터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정책금리가 4%를 넘을 필요가 있으며, 인상 후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동결을 거쳐 인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발언. 한편 9월 인상폭은 0.5%p가 적절하다고 진단

■ 미국 7월 5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전주 대비 증가. 공급 우위 여건은 지속

- 신규 청구건수는 26만건으로 전주(25.4만건) 및 예상치(25.9만건) 상회. Oxford Economics는 노동시장 과열이 완화되면서 청구건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, 노동공급 우위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급증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

■ 뉴욕 연은 7월 글로벌 공급망압력 지수, 18개월래 최저. 공급 병목 완화 지속

- 해당 지수는 1.84로 '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. 전문가들은 항만 물류 정체가 완화된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,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의 수입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

■ 미국 모기지 금리, '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5% 하회. 국채금리 하락 등이 배경

- 30년만기 모기지금리는 4.99%로 전주(5.30%)대비 하락. Freddie Mac의 Sam Khater는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금리 변동성을 높였다고 지적

■ 미국 6월 무역수지, 전월비 개선. 에너지 수출 증가 등에 기인

- 무역수지 적자폭은 796억달러로 전월(849억달러)대비 축소. 수입은 전월비 0.3% 감소하고,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1.7% 증가. 전문가들은 앞으로 강달러, 세계 수요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

■ ECB 6월 서베이,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전망치 전월비 상승

- 향후 12개월내 인플레이션 전망은 5.0%로 전월(4.9%)대비 상승. 향후 3년간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(2.5%→2.8%)

■ 독일 정부, 10월부터 천연가스 이용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

- 하벡 장관은 천연가스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난방과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

■ 이탈리아 정부, 170억유로 규모의 인플레이션 대응 계획을 승인

- 프랑코 재무장관은 고물가로부터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, 세입증가가 지출확대를 상쇄해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

■ 일본 재무성 관계자, 일본은행의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폐지에 대비

- 일본은행의 장기금리 상단 제한 정책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 시 국채시장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할 대책을 준비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4 현지시각 기준)

- 독일 6월 공장수주(전월비): -0.4%, 5월(-0.2%), 예상치(-0.8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5 현지시각 기준)

- 리치몬드 연은 총재, 영란은행 필 위원 강연, 인도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
- 미국 7월 고용보고서 및 6월 소비자 신용, 독일 6월 산업생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아시아 신흥국, 환율방어에 금리인상 외 외환보유액 지출 등 다각적 노력 - 블룸버그

(Asia Central Banks Deploy FX Reserves in Fighting Currency Bears)

- 아시아 신흥국들은 자국의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인상에만 의존하기보다 그동안 축적된 외환보유액을 활용. 이러한 외환보유액의 활용은 완만한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상승 압력 통제와 성장둔화 예방이 목적
- 또한 최근 아시아 신흥국의 금리인상은 미국과의 금리차 해소보다 고물가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석. 이와 같은 노력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의 통화가치는 여타 신흥국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시현
- 외환보유액 사용 및 금리인상 외에도 환율방어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시도. 인도 중앙은행은 규제완화를 통해 달러유입을 촉진.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공적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시 적극적인 환헤지를 요구

■ 미국 경기흐름, 경제주체의 기대심리가 주도 - The New York Times

(The Vibes in the Economy Are ... Weird. Really Weird.)

- 미국경제의 70%를 차지하는 가계지출은 소비심리에 좌우. 최근 소비자신뢰지수는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,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실질 임금은 3.1% 하락. 주택가격도 지난 2년간 40% 급등하면서 구매력 하락에 기여
- 한 연구에서는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 영향을 받은 경제심리의 변화가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의 42%를 설명한다고 지적. 경기침체 대응에 있어 GDP와 같은 표면적 경제지표보다 경제주체의 행동과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

■ 주요국 통화당국, 부정적 경제여건 변화에도 고물가 통제에 집중할 가능성 - WSI

(Forget the Economy: Central Bankers Will Only Care about Inflation)

■ 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불구 금융시장은 경기연착륙 기대를 반영 - 블룸버그

(Team Soft Landing Is Starting to Pull Ahead)

■ 경기침체 진입 여부, 경제지표의 기술적 해석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 - 블룸버그

(Blame History, Not Biden, for Making Recession Calls So Hard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